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 김복희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옛날에 이제 두갯이 살아네이 애길 이제 낳는다 아덜하고 딸하고 오누이를 낳어. 오누이 나고 쉼을 다섯 무릎 질렀어. 질란 이젠 어느 날은 딸을 하나 더 낳젠 성 드난 어떤 할망이 이 푸대를 가정 왕 낭중에 보난 호랭이 가족을 그걸을 씨엿 허민 고운 애기를 낳덴 허는 거라.

아 그 호랭이 씨엿 난 게 보난 곱닥헌 애길 난. 낭중 여우를 난 거라. 아 어느 날은 그 애길 어느 정도 큰디 아 일어남 보난 쉼 뒤를 길란느디양 그냥 죽어불 언. 소가 죽어불언, 그 여우가양 하문으로 이제 그 베설 빠 먹는 거라. 내복을, 겹 행 그 애기는 왕 툅허게 구덕에 누워부는 거. 또 호끔 시민 응 또 자 또 듯날 보민 또 쉼 하나도 엿이. 쉼물이 다 죽은 거라. 다 죽으냐네. 이제 아덜이 쫘 요 망졌어이, 아덜이

“어머님 아버지 이 애기가 여우를 닮덴 하문으로 보냐네, 나가 뒤어로 보난.”

밤중에 막 그냥 그걸 본 거주게.

“하문으로 손 썩 들러가지고 내장 빠난 다 죽어부난 이걸 어떻 허민 좋커 허 난 이 애기를 죽이나 어떻 허커?”

허난 막 어멍 아방이 못 죽이게 막 그 아덜을 막 때려 분 거라. 그걸 막 죽이 켜 막 때려 불었어. 이제 아덜은 집 나가 불었어. 뿔대로 허렌 잘못허민 지도 죽 을 거난양. 게난 하 삼스년 지남, 어멍 아방이 다 죽엇인가 행 이젠 절에 들어간 거라. 그 아이가 절에 들어간 그 말을 골으냐네.

“게민 어멍 아방신디 가게 뉘면은 잘못허민 죽을 거난 이제 쉼빋허곡 이제 쉼 허곡 앓앙 가는 게 방법이우다.”

겹 행 그걸 앓앙 시님 말대로 집에 왕 보난, 아무도 엿고 어멍 아방도 다 죽여 불었어. 아무도 엿곡 그 누이만 잇는 거라.

“어멍 아방 어디 가시네?”

허냐네.

“저 다 죽어빋젠.”

거난네 그 일목 그 여우는양 하이고 ‘이제 이 밥을 앓다.’고, 속으론 게난 이젠.

“누이야 동싱아 물을 물 혼 그릇을 떠오라.”

떠오렌 허난양 물에양 떠가분 가분 후젠 이젠 그냥 양 도망친 거라. 도망치영

허난 그냥 그 여우가 돌아온디 아 이제.

“아침밥 이제 떠나뵈다.”

고양, 막 뛰어오는 거라. 그 동심이 잡아먹젠 잡아먹젠 허난양 펄을 양 혹 데끼난양 물바다가 뉘 분 거라. 물바다난 나와지쿠와? 그 시님 곶은 대로, 겐 막 그냥 물로 세와가난양 또 이젠 쉼빔을 데끼난 대왓이 뉘 벼. 겐양 막 도망쳐 돌아오지 못헛젠 돌아오지 못헤연 걸로 끝. 그거 호렝이라.

[조사자] 쉼빔 데끼난 어떻 뉘마씨?

[제보자] 쉼빔을 데끼난 세왓이 뉘 분 거.

[조사자] 세왓이 뭐와? 세왓?

[제보자] 세. 이 거시기 대왓. 대왓.

[조사자] 대왓?

[제보자] 대왓.

[조사자] 대나무.

[제보자] 대나무. 대나무 뉘 그 시님 곶은 대로 뉘꼭 펄이 데끼나네 물바다가 뉘 불꼭. 그 시님 곶은.

[조사자] 물바다. 거 어디서 들읍디가?

[제보자] 시님. 옛말 하르방 저거라. 시님한테 그 아이는 시님신디 강 살당 그추룩 가민 어떻 시님이 그 현 거라. 방법을. 살아나거들랑 이렇게 행 가보라고. 게난 그 호렝이는 조반 틀리꼭 정심밥 반찬 틀렛젠 막 그냥 동심은 그 호렝인 뉘 거라. 돌아오단 버치난. 겐 헛젠 나도 들은 말 여우라. 여우. 현 그릇 가져 오렌.

[조사자] 누이네 집 가난.

[제보자] 가난. 오빠가 이젠 물이 현 잔 가져 오렌 허난 돌아나 분덴 안 돌아났겐헛 그 여우가이 노끈 앓앙 오멍 게민 돌아나지 못허게 지 홀목을 오빠 홀목을 이제 묶으는 거라. 묶으꼭 지 홀목을 묶으난 돌아나 불카부덴 게난 이젠 물 이젠 들레 가 분 후젠 그 지 홀목에 그 노끈을 풀언이 그디 그 의자에 묶엉동 돌아나 분 거라. 왕 보난 의자에 묶으난

“아이고 조반 반찬 응 떠나 불꼭 정심반찬 떠나 불꼭.”

허멍 그 들음박질헛 거라. 그 오빠 잡젠 겐 허난에이 나가 그때 꺼꾸로 헛어. 겐 행 돌난 이제 쉼빔을 데끼난 이젠 세왓 그 뉘 뉘 빗어. 거시기 왕대뵈. 왕대뵈 뉘 불꼭 또 막 돌아와가난이 그냥 펄을 데끼난이 물바다 뉘 부난 돌아오지 못헛어. 겐 허난 그 동심이 곶은 말이

“아이고 아침반찬 이제 틀리꼭 정심반찬 뜰려 빗저.”

허멍 한탄허멍 웨다네 가 분 거라. 곶사 나 그거 꺼꾸로 곶앙 겐 현 거라.

- 핵심어 : 호랑이, 오누이, 여우, 간, 쉼빔, 펄, 대왓, 물바다